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토틀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20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코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토틀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시청자 칼럼 우리는 사는 세상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연애의 발견(재)>	00 MBC 여성토크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55 바른말 고운말		1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이슈	00 SBS12뉴스 30 특별기획 민선6기 100일 윤창현 광주시장 초청 토크콘서트(재)
1 30 뉴스 특급	00 TV 아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10 MBC 네트워크특선 <술, 아름다 2부>	30 예나그날
2 40 직인직설	30 영상 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특집다큐멘터리 <나 홀로 세계여행>	00 SBS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5 정오공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2014 전국 초등부 축구리그(결승)	00 유후와 친구들2 30 자동차 공백상 위키	00 MBC 경제뉴스 10 내 사랑 동 40 헬로킴지 아하 과학탐험대	10 우리야이기가 달라졌어요(재)
4 55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시사지단 55 토틀 생활 체조(재)	00 TV우치원 쿵다콩 30 두리동살 용계공경2(재)	30 퓌! 퓌! 키즈쿨	00 공의 라이벌 프리즘 스토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픽		00 발상의 신(재)		00 SBS 슈퍼라이드 10 KBC 저녁뉴스 20 2014 슈퍼모델 선발대회 1~2부
6 00 박정호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는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7 2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두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아>	00 SBS 8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00 월화 드라마 <아경꾼 일지>	00 SBS 대기획 <비밀의 문>
11 00 부부극장 공작지(재)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5 대국민 토크쇼 인영하세요	15 공간다큐 <그 곳>	15 헬리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채널A 일요기획	50 TV, 책을 보다(재) ①:30 테마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해외걸작드라마 <아틀란티스 - 운명으로 얽힌 인연> ①:40 특파원 현장보도(재)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다이아리 50 실컷 나는 세상 스페셜 ①:50 바비김·이루마의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 골프



<왼쪽부터 정준하·하하·유재석·김태호PD·박명수·노홍철·정형돈>

400회... "시청자가 허락하는 날까지"

'평균 연령 40대' 멤버들 입담·열정 여전

“무한도전”은 이제 성장 단계라고 볼 수는 없겠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적인 부담감은 성장할 때보다 유지·보수하는 지금이 더 버거운 것 같아요.”(김태호 PD)

“국내 최고 리얼 버라이어티쇼”라는 자평이 과하지 않은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400회를 맞았다.

2005년 4월 23일 '토요일' 속 코너 '무모한 도전'으로 출발한 '무한도전'은 같은해 10월 '강력추천 토요일' 코너인 '무리한 도전'을 거쳐 이듬해 5월 6일 지금의 타이틀로 독립했다.

내년 방송 10주년을 앞둔 '무한도전'은 그사이 한국 예능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

지난 9년간 무한도전을 이끌었던 김 PD는 “4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은 시청자가 있다. 2005~2006년 초라했던 시청률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적은 저조하지만 재미있다'고 응원해주던 많은 분 덕분”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유재석은 2007년 '무한도전' 최초의 스포츠 특집이자 장기프로젝트였던 '셀리맨스 맨스스포츠' 특집을, 정형돈은 최초 해외촬영이었던 '뉴질랜드 아이스 원정대' 특집을 각각 잊지 못할 방송으로 꼽았다. 정준하와 노홍철은 전날 멤버 2명씩 짝을 지어 휴대용 카메라로 촬영한 400회 특집 방송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무한도전”의 지난 9년이 영광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애청자들은 종종 예전 같지 않다, 무한도전답지 않다는 쓴소리를 했고 위기설도 제기됐다. 불미스러운 일로 멤버가 하차하는 일도 있었다.

김 PD는 “저희도 사람인지라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지만 그런 상황을 더 숨기고 가리려고 할수록 진실에서 멀어지는 답이 나오는 것 같았다”면서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빨리 공개하고 같이 답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초창기에는 멤버와 캐릭터들이 신선해서 어떤 웃음 임해도 재미있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순간 '왜 무한도전'이 재미없어졌는지 고민을 하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신파적으로 끝내는 것도 무한도전답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축적적인 분위기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예능 프로그램은 박수 보내던 분들이 손가락질할 때 수명을 다하기 마련인데 조금이라도 박수 보내는 분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김태호 PD)

“미스터 백”은 돈·지위·명예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70대 재벌회장 최고봉(신하균 분)이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30대로 젊어지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는 판타지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다.

장나라는 “판타지 로맨스라는 장르와 흥미로운 이야기에 끌려 출연을 결심했다”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 좋은 연기

에만 이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졌어요.”(김태호 PD)

김 PD는 “그럴 때마다 제일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서 ““무한도전”을 보는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을 아깝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섯 멤버도 지난 9년 사이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그동안 욕심을 냈던 방송은 오히려 잘 안 풀리고 기대 안 한 것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정준하는 “저는 기록을 많이 타는 편인데 사실 요즘은 좀 슬럼프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하하(본명 하동훈)는 “한때는 길을 걷다 보면 듣는 이야기가 ‘하하 힘내세요’여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프로그램에도 죄송했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은 그동안 외모나 성격이 가장 많이 바뀐 멤버로는 단연 노홍철을 꼽았다.

한때 ‘돌아이’로 이름을 날린 노홍철 자신도 “제가 외형적으로나 캐릭터적으로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인정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면 쫄쫄이가 아닌 더한 것도 입을 수 있다”는 유재석의 말처럼 평균 연령 40대의 멤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여전한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유재석은 “박명수 씨가 캐릭터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박명수 씨가 36살에 무한도전을 시작할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제 우리 의지로 건방지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멤버들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00분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자기네들끼리 타박하고 육신각산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노홍철이 “월일 멤버는 유재석 씨와 정형돈 씨, 저 이렇게 셋”이라고 강조하자 박명수가 “노홍철 씨는 김바닥에서 왔다 갔다하다가 연예인이 됐고 성공은 저”라고 자반하는 등 출신성분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졌다.

“시청자들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계속하고 싶다”는 멤버들과 김 PD에게 ‘무한도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하는 고민을 저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신파적으로 끝내는 것도 무한도전답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축적적인 분위기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예능 프로그램은 박수 보내던 분들이 손가락질할 때 수명을 다하기 마련인데 조금이라도 박수 보내는 분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김태호 PD)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7:45 두다다콩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코코몽2	19:00 지피터스
07:00 코코몽2(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대마기행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07:30 종선 코끼리 발루보(재)	<러시아 불가 강>(재)	15:30 올리베아	20:40 다투 오늘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00 EBS 정오 뉴스	15:50 피터 래빗	20:50 세계대마기행 <중국 음식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6:00 당동당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가을 지리산)
08:20 두다다콩(재)	13:05 지식채널e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큐프라임
08:35 방귀대장 뽀잉이	13:10 생활백화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달라졌어요
08:50 꿈디와 친구들	13:40 출거운 수학 EBSMATH	16:45 꿈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권문록 아틀라스
09:05 원더 볼즈(재)	13:50 사이틴(Sci-teen)	17:00 방귀대장 뽀잉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9:20 출동 슈퍼원스(재)	14:00 두기 탐험대	17:15 종선 코끼리 발루보	24:10 EBS 인문학 특강
09:35 빼꼼		17:30 꼬마버스 타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07:0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5-2)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12:15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1A형)	07:30 나의 성공비결	16:50 " (국어5-2)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3:05 " <국어A형>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7:20 만명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2>
02:30 " <영어-듣기>	14:00 " <홀리 1>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 강좌	18:00 TV 중학 <문학 3>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화학 1>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40 " <비문학 3>
04:10 " <사회>	15:40 " <생명과학 1>	09:50 " <수학 1상>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5:00 " <한국사상>	16:30 " <지구과학 1>	10:30 " <역사 1>	20:00 EBS 기획특강
05:50 2013 포스 <수학 1A형>	17:20 " <윤리와 사상>	11:10 " <국어③④>	20:50 EBS 기획리츠
06:40 압축탐스런 <홀리 1>	18:10 " <법과 정치>	11:50 " <수학 2상>	21:40 한국기행
07:30 2014 포스 <문학 1>	19:00 " <생활과 윤리>	12:30 등업스공 <수학1상>	22:00 등업스공 <수학3-2>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A형>(재)	13:10 " <수학2(상)>	22:4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09:10 " <영어-듣기>(재)	21:00 " <국어 A형>(재)	13:50 " <과학2(상)>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1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수학 A형>(재)	14:30 " <수학2(상)>	24:00 백정공략 <수학 1>
10:50 2013 포스 <수학 1A형>(재)	<회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5:20 만명왕 <국어3-2>	24:30 " <과학1>
		15:50 " <국어4-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3일(음 9월 20일 丁巳)

子	36년생 밤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편이다. 48년생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기쁨이 있다. 60년생 보안을 주려해야 할 때이다. 72년생 위기를 잘 넘기자. 84년생 철저하게 제어해야만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2, 66	午	42년생 뜻밖의 인연이라던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54년생 손조름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66년생 일사천리로 펼쳐질 것이나 망설이지 말고 계속 하자. 78년생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8, 71
丑	37년생 중요한 일이나 확실히 해두어야 후환이 없다. 49년생 파격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낫다. 61년생 적극적으로이어졌다. 73년생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국면을 타개 하리라. 85년생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1, 53	未	43년생 득이 되리라고 여겨 왔던 것이 집어 될 수도 있나. 55년생 습관적인 반복보다 창의적인 시도가 낫다. 67년생 믿었던 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79년생 불합리함이 보이거든 적절해야만 된다. 행운의 숫자 : 49, 33
寅	38년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50년생 여러 가지가 겹치다보면 중차대한 것을 망각할 수 있다. 62년생 문제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74년생 생 알찬 여건으로 만드자. 행운의 숫자 : 30, 04	申	44년생 주된 것에 치중하다보면 부수적인 것에 소홀해진다. 56년생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68년생 단번에 성과가 나타나는 힘들겠다. 80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한국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62, 58
卯	39년생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51년생 불완전하므로 지금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다. 63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다. 75년생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13, 22	酉	45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때 많이 끼는 법이다. 57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 모든 미련을 버려라. 69년생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 81년생 반복 되던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7, 89
辰	40년생 중된 것이 주된 것보다 더 비중 있다. 52년생 정거적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4년생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나. 76년생 대고 없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70, 40	戌	46년생 가까운 이와 사이에 발전적인 일이 생기겠다. 58년생 정도만 걸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70년생 뜻밖에 지출해야 할 곳이 생긴다. 82년생 국세가 마음과 같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자. 행운의 숫자 : 93, 79
巳	41년생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바야흐로 성공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65년생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스럽겠다. 77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응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48	亥	47년생 중요한 것이 해결되면 부수적인 것은 자연히 그에 따른다. 59년생 길한 여건이 조성 되어야 큰 성과를 거두는 법이다. 71년생 예전 해왔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83년생 국면의 전환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96, 2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장나라·신하균의 판타지 로맨스... MBC '미스터 백'



<신하균>

<장나라>

배우 장나라(33)가 다음달 방송되는 MBC TV 새 수목극 '미스터백'에서 신하균(40)과 호흡을 맞춘다고 MBC가 10일 밝혔다.

'미스터 백'은 돈·지위·명예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70대 재벌회장 최고봉(신하균 분)이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30대로 젊어지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는 판타지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다.

장나라는 “판타지 로맨스라는 장르와 흥미로운 이야기에 끌려 출연을 결심했다”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 좋은 연기

를 보여 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음급남파’, ‘스포츠라이프’를 집필한 최윤정 작가가 드라마 극본을 맡았고, ‘제왕의 딸, 수배향’을 연출한 이상엽 PD가 매가본을 잡는다.

아홉살 섬소녀가 들려주는 '일곱 소리빛깔 무지개'

KBS 1TV '인간극장' 오늘부터 5일간

KBS 1TV '인간극장'은 13~17일 오전 7시50분 '아홉살 섬소녀 미영이'를 방송한다.

미영이는 다도해 푸른 바다 위 작은 섬 대마도(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산다. 한때 말슴이라 불리던 대마도에는 70여 가구가 산다.

미영이는 이 섬 유일한 학생이다. 학교에서 미영이의 단팍은 예순살 김중훈 선생, 공부도 틀어, 급식도 틀어, 날찍한 운동장에서 돌 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5학년 언니가 함께 공부했지만 올 초 서울로 전학갔다.

멀치를 잡는다. 4년 전 바다에서 할아버지가 실종됐고, 그해 엄마도 섬을 떠났다. 미영이는 할머니와 아빠, 큰아빠와 함께 지낸다.

미영이가 아빠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동요다. 틈만 나면 동요를 흥얼거리는 미영이는 지난 봄 광주에서 열린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에서 '이슬열매'라는 노래로 당당히 은상을 차지했다.

그때 진도 바다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섬 길이가 어수선했고, 미영이는 10시간 동안 배를 타고 26개가 넘는 섬을 거쳐 대화가 있는 광주에 갔다. 이런 미영이가 이번 가을, 다시 한번 동요대회에 나간다. 이번엔 부르는 노래는 '일곱 소리빛깔 무지개'다. /연합뉴스